

지역 소식통

정읍 '팻티켓' 홍보 강화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는 겨우내 코로나19와 맞물려 움츠렸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공원으로 집중함에 따라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팻티켓(Petiquette)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과 외출 때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90명 모집

정읍시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직장 거주자 포함)으로 혈압과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다. 단, 관련 질환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작년 사업 참여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심박수와 보행 수, 소모 칼로리 등을 기록하는 손목형 스마트 활동량계가 무료로 지급된다. 보건소는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부안 국도건설 조기 착공을

'노을대교 군민추진단' 범군민 서명운동 돌입

전북 고창-부안(노을대교) 국도건설(국도 77호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고창·부안 노을대교군민추진단'은 31일 고창과 부안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을대교 조기착공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군민추진단은 서명을 통해 "타 지역에는 해저터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동안 전북 서남권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을대교는 대한민국 물류 대동맥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꼭 완성돼야 한다"며 "2022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3년 새만금 세계캠버리대교 등 전북 서남권의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을대교 조기착공으로



전북 고창-부안(노을대교) 국도건설(국도 77호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환황해 경제중심지 도약을 촉구하며 최소 3만인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군민추진단은 이후 노을대교 조기착공 관련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온라인을 병행해 서명

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본격 '시동'

정읍시, 연구용역 착수

정읍시가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30일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인구는 정읍의 미래를 담보하는 행정의 가장 기초적 기반단위로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대응해 정읍의 인구실태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재)전북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태다.

또, 전라북도는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으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 시군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

특히, 정읍시 인구는 2010년 12만2천 명에서 2020년 10만8천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만4천 명이 감소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읍의 지역적·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을 접목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해 인구감소 속도 완화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중간보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관기관과 안전한 정읍 만들기 머리 맞대

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한 대책 회의

정읍시가 매년 안전 정도를 등급화하는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달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30일 박승기 부시장을 비롯한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관계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최고 수준의 안전지수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실재근 안전총괄과장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

총괄 보고에 이어 경찰서와 소방서, 교통과, 건설과 등 유관부서장의 개선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시는 회의에서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지방도와 시군도 과속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1대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과 보행자 위험요소 지역에는 횡단보도 야간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자살 분야 개선대책으로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지역 연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법정 감염병인 결핵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등록관리와 결핵균 검사 등 조기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간담회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

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박준성 회장, 부안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미옥 회장,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김지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국공립고창어린이집을 교촌리 옛 군수 관사에서 뉴타운지역(뉴타운2길 28)로 신축 이전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고창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이전 개원식

고창군이 국공립고창어린이집을 교촌리 옛 군수 관사에서 뉴타운지역(뉴타운2길 28)로 신축 이전하고 개원식을 열었다.

행사는 지역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 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성경찬·김만기 전북도의원,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동요감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과 현판제막식, 시설관람순으로 진행됐다.

국공립 고창어린이집은 2003년 2월 고창군청 소속 직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환경 조성과 육아부담 완

화를 위해 옛 군수 관사를 고창군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 개원했다.

이후 2014년 12월 고창군 최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2017년, 2019~2020년 연속으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등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8년 신축된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아동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 부지로 이전하게 됐다.

새로 이전한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25억40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29.81㎡규모로 보육실 6개(만 1세, 2세, 3세, 4·5세, 연장보육반), 강당, 조리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45명의 원아와 6명의 교사가 생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